

KMI 북방물류리포트

VOL.136
JULY 16 2020

발간년월 2020년 7월 16일 (통권 제136호)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(동삼동)
발행인 장영태 총괄 이주호 감수 최재선 담당 김엄지/김지영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
자료문의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역연구실 TEL +82-51-797-4776 FAX +82-51-797-4659



주요 동향

- 러, 북극해 함대와 태평양 함대 연계로 북극안보 강화
- 가스프롬, 북극 항로를 이용 중국행 석유화물 첫 운송
- 러 극동 지역 보스토치니 항 컨테이너 터미널 재개발
- 러 다목적 복합 단지 브론카, 컨테이너 처리량 늘어나
- 러, 2024년까지 모스크바와 카잔 연결 고속도로 건설
- 이란, 아제르바이잔 경유 유럽행 화물 운송 철도 개설

주요 통계

- 2020년 4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
- 2020년 4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품목 규모
- 2020년 4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



주요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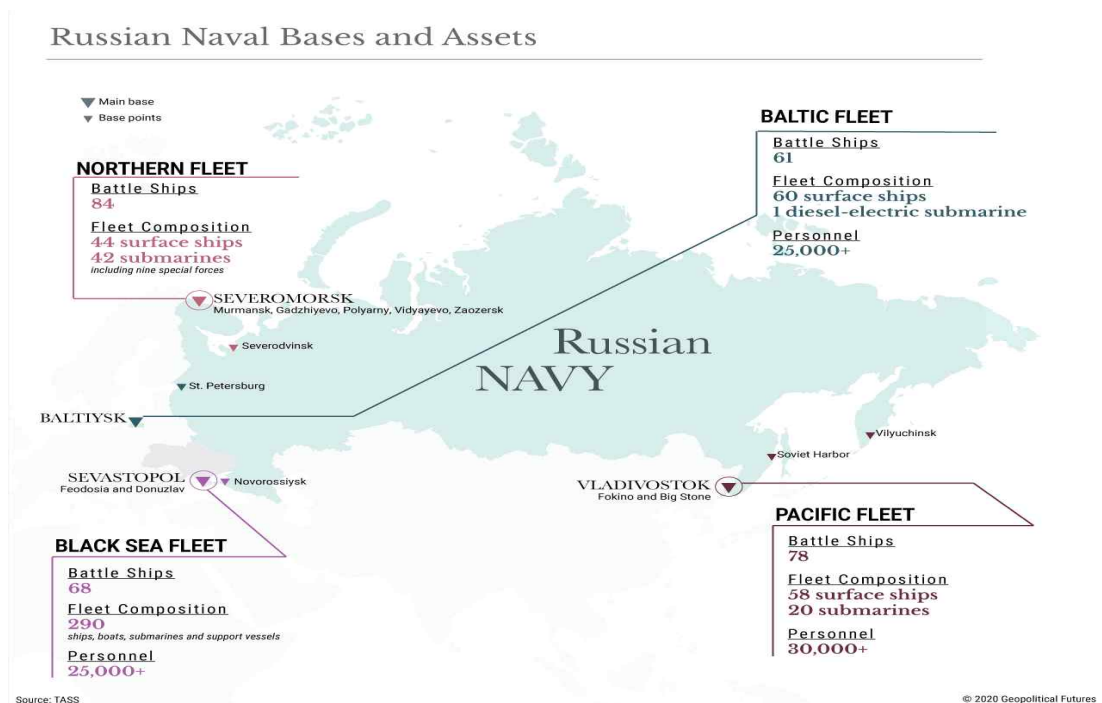


러, 북극해 함대와 태평양 함대 연계로 북극안보 강화

■ 러시아는 최근 태평양 함대(Pacific Fleet)의 전력보강과 함께 북극해 함대(Northern Fleet)와 연계를 적극 추진^{a)}

-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발트해와 흑해 함대를 중심으로 영토 서쪽의 안보에 집중해왔으나 최근 동쪽인 태평양 함대의 전력증강에 힘쓰고 있음
- 러시아 태평양 함대는 북극해와 태평양, 인도양에 걸치는 광범위한 지역을 관할하고 있어 러시아의 함대 중 가장 넓은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데, 모항은 블라디보스토크임
- 태평양 함대는 핵잠수함과 전략미사일 잠수함 등 20대의 잠수함과 58척의 전함과 미사일, 전투기 부대를 비롯해 약 3만 명의 병력을 운영하고 있음

그림1. 러시아 해군기지와 전력 현황



자료: <https://geopoliticalfutures.com/russias-arctic-ambitions/>

■ 태평양 함대의 고질적 약점인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 투자 계획 수립^{b)}

- 러시아 태평양 함대는 모스크바는 물론 다른 함대와 거리가 멀어, 연계성이 떨어지는 약점을 가지고 있음. 극동 지역의 열악한 교통 인프라로 인해 연계성 강화에 한계가 있음
- 극동 지역 철도 연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지만, 고지대가 많고 지형이 복잡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워 태평양 함대를 북극 함대와 연결하는 계획을 추진 중
- 러시아의 장기 전략은 무르만스크에서 태평양 함대의 모항인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연중 운항할 수 있는 해상 운송로를 개척하는 것이지만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연중 운항은 쉽지 않음
- 러시아는 신규 쇄빙선 도입으로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는데, 원자력 쇄빙선 22220 프로젝트를 통해 도입되는 쇄빙선 3척(아르티카, 시베리아, 우랄)을 포함해 5척의 핵 추진력 쇄빙선을 건조할 계획
-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4.3m의 얼음을 깨고 연중 가동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쇄빙선 '리더'의 건조에 착수했음. 러시아는 2033년까지 '리더'형 쇄빙선 3척을 도입할 계획이며, 2035년에는 9척의 원자력 쇄빙선을 포함해 13척의 쇄빙선을 가동할 계획
- 위와 같은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함. 러시아는 코로나19와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연방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지속할 계획

그림2. 러시아가 추진 중인 원자력 쇄빙선 '리더'의 모형



자료: <https://www.atomic-energy.ru/news/2020/07/06/105131>

그림3. 러시아 철도와 컨테이너선 운송로

Russian Railway and Containership Sea Lanes



자료: <https://geopoliticalfutures.com/russias-arctic-ambitions/>

진화권 전문연구원,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연구실
(hkjin@kmi.re.kr/051-797-4766)

참고자료

- <https://geopoliticalfutures.com/russias-arctic-ambitions/> (검색일: 2020년 7월 15일)
- <https://www.atomic-energy.ru/news/2020/07/06/105131/> (검색일: 2020년 7월 15일)

가스프롬, 북극항로를 이용 중국행 석유 화물 첫 운송

■ 러시아의 가스프롬 네프트(Gazprom Neft), 러시아 무르만스크(Murmansk)에서 중국 엔타이(Yantai)로 석유 화물을 운송^{a)b)}

- 가스프롬 네프트는 러시아 노비 포트(Novy Port) 지역에서 생산한 14만 4,000 톤의 경유를 북극 항로를 이용해 중국 엔타이로 운송했으며, 이번 운송에는 47일이 걸렸다고 밝힘
- 가스프롬 네프트는 로스네프트(Rosneft), 루크오일(Lukoil)에 이어 러시아 3위의 석유생산 업체로 러시아 최대의 천연가스 생산 기업인 가스프롬(Gazprom)이 95%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
- 가스프롬 네프트는 2013년부터 유럽으로 4,000만 톤 이상의 원유를 운송했으며, 이 과정에서 북극항로를 이용하고 있었으나 중국 운송은 처음. 이에 앞서 루크 오일도 작년 10월 북극항로를 통해 중국에 원유를 운송한 바 있음

그림. 노비 포트의 석유 환적 터미널



자료: <https://www.gazprom-neft.com/company/major-projects/new-port/>

참고자료

- a) <https://energy.economictimes.indiatimes.com/news/oil-and-gas/russias-gazprom-neft-send-s-its-first-oil-cargo-to-china-via-arctic-route/76950831> (검색일: 2020년 7월 15일)
- b) <https://www.gazprom-neft.com/company/major-projects/new-port/> (검색일: 2020년 7월 15일)

러 극동 지역 보스토치니항 컨테이너 터미널 재개발

■ 보스토치나야 하역회사(Vostochnaya Stevedoring Company, VSC), 보스토치니항의 컨테이너 터미널 재건축 사업 입찰 추진^{a)}

- 입찰 제안서에 따르면 계약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4억 3,000만 루블이며, 천장 재건축, 창고 내 전력 공급 및 기술망 구축 등이 주요 사업내용임
- 현재 5~6번 부두에서는 총 길이 32m, 수용량 30.5톤인 레일형 갠트릭크레인(RMG) 2대로 컨테이너를 처리되고 있음
- 2021년 기준으로 장비폐기계획에 따라 이 크레인 2대 모두 폐기되기 때문에 신식 크레인으 로 교체가 필요함
- 이 작업은 2021년 5월 30일까지 완료될 예정임

■ VSC은 Goba Ports 그룹사(社)의 계열사로 극동지역 보스토치니 항만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임^{b)}

- 대표는 알렉세이 아나톨리예비치 파블렌코(Alexey Anatolievich Pavlenko)이며, 본사는 나호 트카에 소재해 있음
- 주로 컨테이너, 일반 화물 및 Ro-Ro 화물을 처리하며, 화물하역, 포워딩, 보관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음
- VSC가 운영하는 컨테이너 터미널 면적은 77ha이며, 선석은 총 4개, 선석 높이는 2.8m, 수 심은 최대 13.5m로 리퍼컨테이너용 전기 콘센트 230개가 설치되어 있으며, 야적장 면적은 35ha임

김엄지 연구원,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연구실
(umjikim@kmi.re.kr/051-797-4776)

소피아 센터원, KMI 러시아연구센터
(s.vostrikova1608@gmail.com/051-797-4776)

참고자료

- a) https://www.korabel.ru/news/comments/v_portu_vostochnyy_provedut_rekonstrukciyu_konteynerno_terminala.html (검색일: 2020년 7월 12일)
- b) <http://www.vscport.ru/ru-ru/aboutcompany> (검색일: 2020년 7월 12일)

러 다목적 복합 단지 브론카, 컨테이너 처리량 늘어나

■ 브론카(Bronka)의 2020년 1~4월 철도 컨테이너 물동량, 작년 동기 대비 1,244TEU (+16.6%) 증가^{a)}

- 브론카 복합단지는 다목적 환적복합단지로 상트페테르부르크항만 내에 있음
- 해외에서 처리되고 있는 러시아 화물을 러시아 항만으로 유치하기 위해 브론카 복합단지 사업을 추진함
- 브론카 그룹(Bronka Group)이 단지를 운영하며, 브론카 항만터미널은 페닉스(Fenics)사(社)가 운영 중임
- 2019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서 러시아철도청과의 협력사업으로 브론카 환적복합단지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, 올해는 재정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
- 총 면적은 31m²이며, 총 길이 7km 이상의 철도 노선 7개를 포함해 간선도로, 창고 등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임
- 이 사업이 끝나면, 화물운송시간을 단축시키고, 복합운송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 연간 800만 톤 규모의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

■ 특히 중국~유럽~중국 노선을 통한 컨테이너 물동량은 급격히 증가함^{a)}

- 2020년 1~4월 중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물동량은 42%(8만 3,000TEU), 유럽에서 중국으로 가는 물동량은 10%(약 3만 6,000TEU) 증가함

■ 브론카 항만터미널은 상트페테르부르크항만 내 가장 수심이 깊은 터미널로 수심이 347m 이하 되며, 최대 길이 347m, 넓이 50m인 선박이 접안 가능함^{b)}

- 총 길이가 324m 되는 선석을 신설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, 올해 5월 러시아 국가감정평가원은 브론카 터미널 건설 1단계 관련 설계도 조사 보고서를 승인함
- 러시아 국가감정평가원은 이 사업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 운하를 통한 항해 시간을 최소 3시간 정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함

그림. 브론카 항만 터미널



자료: <https://www.bronkagroup.ru/assets/mmpk-bronka/#24>

김엄지 연구원,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연구실
(umjikim@kmi.re.kr/051-797-4776)

소피아 센터원, KMI 러시아연구센터
(s.vostrikova1608@gmail.com/051-797-4776)

참고자료

- a) http://vch.ru/event/view.html?alias=bronka_prityanula_konteinery_port_pereschel_k_aktivnomu_rasschireniyu (검색일: 2020년 7월 12일)
- b) <https://www.bronkagroup.ru/> (검색일: 2020년 7월 12일)

러, 2024년까지 모스크바와 카잔 연결 고속도로 건설

■ 미하일 미슈스틴(Mikhail Mishustin) 러시아 총리는 유럽-서부 중국 연결 국제 운송로의 하나로 모스크바와 카잔 연결 고속도로를 2024년까지 건설하여 운영한다고 발표함

- 유럽-서부 중국 연결 국제 운송로(International Transport Route "Europe-Western China")는 러시아, 카자흐스탄 및 중국의 합작 투자 프로젝트임
- 이 국제 운송로의 총 길이는 약 8,000km에 해당하며, 그중 2,192km는 러시아, 2,787km는 카자흐스탄, 3,181km는 중국 영토를 통과함
- 러시아 영토를 통과하는 모스크바와 카잔 연결 M-12 고속도로의 총 길이는 약 794km임
- 러시아 당국은 이 도로 건설을 통해 도시 사이 이동 거리를 절반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, 도로 건설에는 약 1,500억 루블을 할당할 계획이라고 밝힘

■ 미슈스틴 총리는 카잔이 위치한 볼가 지역은 러시아의 주요 경제적 요충지이며, 도로 건설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의 러시아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

- 모스크바와 카잔 연결 고속도로는 모스크바와 사마라-토글리아티, 니즈니 노브고로드 및 카잔 등 러시아의 주요 도시 4개를 연결함
- 미슈스틴 총리는 이 도로 건설 계획은 볼가 지역 산업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것이며, 러시아 지역 생산품의 총 증가는 2050년까지 5,000억 루블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음
- 그는 고속도로 건설에만 직접적으로 3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, 자동차, 석유 화학, 전자, 운송, 물류 및 서비스 부문 관련 산업에서 13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형성될 것이라고 언급했음
- 도로 건설로 물류 운송이 가속화되고 러시아의 대규모 산업 단지에 대한 접근이 편리해질 뿐만 아니라, 중소기업 육성 및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음

그림.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



자료: Ria Novosti

김현진 리포터,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
(hyunjink24@gmail.com)

참고자료

- a) <https://realty.ria.ru/20200710/1574171304.html> (검색일: 2020년 7월 13일)
- b) https://yocity12.com/news/rosiya-i-mir/trassa-moskva-kazan-budet-dostupna-v-2024-godu/?utm_source=yxnews&utm_medium=desktop&utm_referrer=https%3A%2F%2Fyandex.ru%2Fnews (검색일: 2020년 7월 13일)

이란, 아제르바이잔 경유 유럽행 화물운송 철도 개설

■ 이란은 아제르바이잔을 경유해 유럽으로 가는 차바하(Chabahar)-자헤단(Zahedan) 철도 노선을 개설함

- 차바하(Chabahar)-자헤단(Zahedan) 노선이 신설됨. 이 노선은 이란의 카즈빈(Kazvin)-라슈트(Rasht)-아스타라(Astara)에서 아제르바이잔의 아스타라(Astara)를 경유해 유럽으로 화물을 운송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
- 신설된 철도는 이란의 도시들과 차바하 항구(Chabahar Port)가 있는 시스탄 발루체스탄(Sistan Baluchestan) 지방을 연결시킴. 시스탄 발루체스탄 지방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고, 국제 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
- 차바하 항구는 걸프 해안의 반다르 아바스(Bandar Abbas) 항구와 함께 국제 남북 운송 회랑을 연결시키는 통로임
- 걸프 국가^{a)}는 반다르 아바스 항구를 통과하고, 동남아시아 국가^{b)}는 차바하 항구로 이어지는 국제 남북 운송 회랑을 통해 유럽과 교역하고 있음

■ 한편, 아제르바이잔과 이란의 국경 도시 아스타라를 연결하는 철도 운행이 시작됨

- 아제르바이잔은 대형화물수송 인프라 설비를 완료함. 이에 따라, 아제르바이잔과 이란의 국경 도시 아스타라를 연결하는 철도의 운영이 시작됨
- 바쿠-아스타라(Baku-Astara) 고속도로와 알라트(Alat) 국제 해상 항만 건설사업이 완료되면서 환적화물이 증가하고 있음

■ 아제르바이잔은 차바하-자헤단, 라슈트-아스타라 노선을 연결하는 국제 운송 허브가 될 것임

- 차바하-자헤단 철도는 총 628km이며, 2020년 말까지 150km가 완료될 것임. 전체 노선은 향후 3년 안에 완공될 것임
- 현재 카즈빈-라슈트-아스타라 철도 노선 중 일부인 카즈빈-라슈트 섹션은 운영 중이고, 라슈트-아스타라 철도 섹션은 건설 작업 진행 중임
- 이란의 도로 및 도시 개발부에 따르면, 철도 완공 시 연간 약 92만 7천 명의 승객과 280만 톤의 화물을 운송할 것임

a) 사우디아라비아, 아랍에미리트, 쿠웨이트, 바레인, 카타르 오만 등

b) 태국, 인도네시아, 필리핀, 말레이시아, 싱가포르, 베트남, 라오스 미얀마 등

그림. 차바하(Chabahar)-자헤단(Zahedan) 노선



자료: [https://images.livemint.com/r/LiveMint/Period2/2016/05/24/Photos/G-iraqmap\(modi\)web.jpg](https://images.livemint.com/r/LiveMint/Period2/2016/05/24/Photos/G-iraqmap(modi)web.jpg)

김지영 연구원,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연구실
(jiyeong111@kmi.re.kr/051-797-4765)

안은형, 부산대학교 노어노문학과
(dksdmsgud6@naver.com)

참고자료

a) <https://www.azernews.az/nation/166807.html> (검색일: 2020년 7월 10일)



주요 통계



표. 2020년 4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

(단위: 백만 톤, %)

수역*	건화물	액체화물	합계	2019/2020 증가율
극동지역	11.94 (+1.0%)	6.95 (+4.0%)	18.89	+2.2%
북극해	2.45 (-7.2%)	5.82(-3.3%)	8.27	-4.4%
발트해	9.35(-1.8%)	13.36(+7.0%)	22.71	+3.3%
아조프-흑해	9.44(+14%)	12.97 (+5%)	22.41	+8.3%
카스피해	0.35 (+46.3%)	0.42 (+17.0%)	0.77	+28.7%
합계	33.52(%)	39.53(%)	73.05	+3.7%

* 주: 극동지역: 블라디보스톡, 자루비노, 울가, 포시에트, 나호트카, 보스토치니, 바니노, 소베츠키야가반, 데-카스트리스, 네벨스크, 홀름스크, 프리고로드노예, 마가단,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스키

북극해: 무르만스크, 칸달라크샤, 나리안마르, 두딘카, 아르한겔스크, 오네가, 바란데이, 페벡, 사베타

발트해: 상트페테르부르크, 프리모르스크, 브보스크, 비소츠크, 우스트-루가, 칼리닌그라드

아조프-흑해: 노보로시스크, 겔렌지크, 투압세, 타간로크, 아조프, 로스토프 나 도누, 다망, 템류크, 카프카즈

카스피해: 아스트라한, 올라, 마하치칼라

참고자료

a) https://www.korabel.ru/news/comments/gruzooborot_morskih_portov_rossii_za_pervyy_kvartal_vyros_na_2_4_do_207_08 mln_t.html (검색일: 2020년 6월 19일)

b) https://www.korabel.ru/news/comments/gruzooborot_morskih_portov_rossii_za_yanvar-aprel_vyros_na_3_7_do_280_13 mln_tonn.html (검색일: 2020년 6월 19일)

표. 2020년 4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 품목 규모

(단위: 천 톤)

품목	해외*		CIS**		합계	
	수출	수입	수출	수입	수출	수입
식료품 및 원자재	364383.60	76406.30	1759.00	1153.00	366142.70	77559.3
광물 제품	1399319.70	16961.30	45324.00	47020.80	1444644.10	63982.00
연료 및 에너지 제품	1336125.60	15806.00	98.40	0.00	1336224.00	15806.00
생고무 및 화학 제품	4321.80	54649.40	764.40	783.60	5086.10	55432.90
가죽원료, 모피 제품	0.60	886.00	0.20	14.00	0.90	900.10
목재 및 펄프, 종이 제품	84801.70	7940.30	683.20	34.80	85484.90	7975.10
섬유, 섬유 제품 및 신발	3254.00	57295.50	75.90	716.40	3329.90	58011.90
금속 및 금속 제품	12828.20	45278.90	57.90	1367.30	12886.00	46646.20
기계류	-3123.3	314021.60	1275.20	814.10	-1848.2	314835.70
기타	21132.40	29744.30	91938.70	240.90	113071.00	29985.10
합계	3,226,167.60	618989.60	141976.90	52,145	3366869.60	593,575

*주: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

**주: 아제르바이잔, 아르메니아, 벨라루시, 카자흐스탄, 키르기스스탄, 몰도바, 타지키스탄, 우즈베키스탄

- 러시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, 2020년 1~3월 기계류 수출누적규모는 96,207,100톤이며, 1~4월 수출누적규모는 94,358,900톤임

참고자료

a) <http://dvtu.customs.ru/folder/230467> (검색일: 2020년 6월 19일)

표. 2020년 4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

(단위: 천 톤, 달러)

품목	해외*				CIS**				합계			
	수출		수입		수출		수입		수출		수입	
	톤	천 달러	톤	천 달러	톤	천 달러	톤	천 달러	톤	천 달러	톤	천 달러
냉동어	158,461	210,165.5	2,462	3,749.9	181	201.8			158,641	210,367.3	4,991	3,744.3
연어류	3,762	7,055.9	-	-	-	-	-	-	3,761	7,055.9		
넙치	579	2,548.7	-	-	-	-	-	-	579	2,548.7	-	-
가자미	7,899	1,902.2	-	-	-	-	-	-	2,077	1,902.2	-	-
가자미류	2,142	2,102.9	-	-	-	-	-	-	2,142	2,102.9	-	-
청어	2,880	1,798.4	-	-	81	63.6	-	-	2,961	1,862	-	-
대구	6,878	18,036	-	-	-	-	-	-	6,878	18,036	-	-
명태	123,708	132,860.9	-	-	80	115.0	-	-	123,788	132,975.9	-	-
농어	19	44.7	-	-	-	-	-	-	19	44.7	-	-
간, 곤이 (어란)	9,382	35,440.4	-	-	-	-	-	-	9,382	35,440.4	-	-
지느러미, 머리, 꼬리 등 생선부산물	781	1,253.7	-	-	-	-	-	-	781	1,253.7	-	-
생선 필렛, 어육	6,965	20,293.9	89	383.5	14	30.6	-	-	6,979	20,293.9	89	383.5
건어, 훈제, 염장, 어분	-	1.1	116	630.8	-	1.5	-	-	-	2.6	116	630.8
갑각류	5,533	92,752.4	-	-	-	-	-	-	5,532	92,752.5	-	-

계류	4,694	86,498.6	-	-	-	-	-	-	4,694	86,498.5	-	-
조개류	629	1,080.4	-	-	-	-	-	-	629	1,080.4	-	-
가리비	488	796.1	-	-	-	-	-	-	488	796.1	-	-
오징어류, 문어류	141	284.3	87	444.8	-	-	-	-	141	284.3	87	444.8
수산 무척추 동물	778	2,389.1	-	-	-	-	-	-	778	2,389.1	-	-
성게류	160	421.1	-	-	-	-	-	-	160	421.1	-	-

*주: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

**주: 아제르바이잔, 아르메니아, 벨라루시, 카자흐스탄, 키르기스스탄, 몰도바, 타지키스탄, 우즈베키스탄

소피아 센터원, KMI 러시아연구센터
(s.vostrikova1608@gmail.com/051-797-4776)

참고자료

a) <http://dvtu.customs.ru/folder/230467> (검색일: 2020년 6월 19일)